

2024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제2외국어/한문)

※ 본 전국연합학력평가는 17개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시행되며, 해당 자료는 EBSi에서만 제공됩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는 금지됩니다.

한문 I 정답

1	③	2	④	3	①	4	⑤	5	①
6	②	7	④	8	③	9	③	10	⑤
11	③	12	②	13	②	14	①	15	⑤
16	③	17	④	18	④	19	②	20	①
21	⑤	22	①	23	⑤	24	④	25	⑤
26	③	27	④	28	③	29	②	30	④

해설

- [출제의도]** 한자의 모양·음·뜻을 안다.
‘달 아래’를 뜻하는 것은 ‘月下’이다.
- [출제의도]** 한자의 모양·음·뜻을 안다.
ㄱ. 말쑤, ㄴ. 안－밖, ㄷ. 나무, ㄹ. 옳다－그르다
- [출제의도]** 일상용어의 의미를 알고 활용한다.
① 백수 ② 백인 ③ 백수 ④ 공수 ⑤ 공백
- [출제의도]** 한자의 모양·음·뜻을 안다.
性은 음이 ‘성’, 부수가 ‘心(忄)’, 총획은 ‘8획’이며, 本性은 ‘본성’이라고 읽고, ‘사람이 본디부터 가진 성질’이라는 뜻이다.
- [출제의도]** 일상용어의 의미를 알고 활용한다.
문안(問安)은 ‘웃어른께 안부를 여쭙. 또는 그런 인사’라는 뜻이다. 平安은 ‘평안’이라고 읽고, ‘까다롭지 않고 무딘하다.’라는 뜻의 ‘무난’은 無難이라고 쓴다.
- [출제의도]** 성어의 의미를 알고 활용한다.
가로 열쇠는 ‘견리사의(見利思義)’이고, 세로 열쇠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이다.
- [출제의도]** 일상용어의 의미를 알고 활용한다.
① 방심 ② 공용 ③ 정직 ④ 동행 ⑤ 반목
- [출제의도]** 한자문화권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활용한다.
대만에서 고중(高中)은 고급중학(高級中學)의 줄임말로 한국의 고등학교(高等學校)와 같다. ① 관 ② 위 ③ 등 ④ 견 ⑤ 조
- [출제의도]** 학습 용어의 의미를 알고 활용한다.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지리 교과 학습 용어인 하중도(河中島)이다. ① 군사(군) ② 시장(시) ③ 강(하) ④ 문(문) ⑤ 여름(하)
- [출제의도]** 일상용어의 의미를 알고 활용한다.
‘깨달아 앎.’이라는 뜻의 ‘이해’는 理解라고 쓴다. ① 조회 ② 상대 ③ 인과 ④ 이해 ⑤ 이해
- [출제의도]** 한자의 모양·음·뜻을 안다.
① 개(견) ② 사나이(부) ③ 잃다(실) ④ 먼저(선) ⑤ 빛(광)
- [출제의도]**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고 활용한다.
‘고진감래(苦盡甘來)’는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라고 풀이하며, ‘고생 끝에 즐거움이 있음.’이라는 뜻이다. ① 각자무치 ② 고진감래 ③ 난형난제 ④ 죽마고우 ⑤ 등화가친
-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이해한다.

이로운 사람과 더불어 지내면 배움이 날로 밝아지고 학업이 날로 나아간다.

‘근주자적(近朱者赤)’은 ‘붉은색을 가까이하는 사람은 붉어진다.’라고 풀이하며, ‘가까이하는 사람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됨.’이라는 뜻이다. ① 결초보은 ② 근주자적 ③ 단도직입 ④ 오합지졸 ⑤ 마이동풍

14.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이해한다.

- 남을 꾸짖는 마음으로 (㉠나)를 꾸짖어라.
-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나’를 뜻하는 ‘기(己)’는 의미상 ‘남’을 뜻하는 ‘인(人)’, ‘그’를 뜻하는 ‘피(彼)’와 상대된다.

15. **[출제의도]** 한자문화권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활용한다.

① 바늘 도둑이 커서 소도둑 된다. ② 한 장 종이의 가벼움도 둘의 힘이면 들기 쉽다. ③ 정치가 흥하는 바는 민심을 따르는 데에 있다. ④ 성인이 경계함을 반드시 바야흐로 성할 때에 있다. ⑤ 높은 산에 오르지 않으면 하늘이 높은 것을 모른다.

16.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이해한다.

① 가다(거) ② 화하다(화) ③ 멀다(원) ④ 나누다(별) ⑤ 살다(활)

17. **[출제의도]**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고 활용한다.

천하의 일은 연습보다 귀한 것은 없다.

18.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이해한다.

작은 일을 갖춘 뒤에 큰일을 이룰 수 있고, 작은 물건을 쌓은 뒤에 큰 물건을 이룰 수 있다.

19. **[출제의도]**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고 활용한다.

왕상은 성품이 (㉠효성스러웠다.)...(중략)... 어머니가 일찍이 살아있는 물고기를 (드시기를) 원하였는데 당시에 날씨가 추워 얼음이 얼어 있었다. 왕상이 옷을 벗고 얼음을 깨고서 이를 찾으려 하였더니 얼음이 문득 저절로 녹으며 한 쌍의 잉어가 뛰어나와 이를 가지고서 돌아갔다.

① 맑다(청) ② 효도(효) ③ 지혜(지) ④ 성내다(노) ⑤ 슬프다(애)

- [20 ~ 21]

자공이 벼슬 (사귀는 것에 대해) 물었는데 공자가 말했다. “충심으로 말해 주고 ㉠잘 인도하되 ㉡불가능하면 그만두어서 스스로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

20. **[출제의도]** 한자의 모양·음·뜻을 안다.
본문에서 ‘선(善)’은 ‘잘하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① 선방 ② 선량 ③ 선악 ④ 권선 ⑤ 적선

21.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이해한다.

좋은 의도로 하는 충고라도 친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만둘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 [22 ~ 23]

(가) 남들은 강남의 ㉠즐거움을 말하지만, / 나는 강남의 근심을 보고 있네. / 해마다 모래 포구에서, / 애타게 돌아오는 ㉡배를 바라보네.

(나) 가을 ㉢그늘 막막하고 온 산은 비었는데, / 낙엽은 소리 없이 땅에 가득 붉구나. / 시내 다리에 말을 세우고 돌아갈 ㉣길을 물으니, / 몰랐네, 내 몸이 ㉤그림 속에 있는 줄을.

22. **[출제의도]** 한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樂은 ‘즐겁다(락)’, ‘음악(악)’, ‘좋아하다(요)’로 쓸 수 있다.

23. **[출제의도]** 한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가)는 떠난 이가 돌아오기를 매년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으로 마무리하며 재회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고, (나)는 이별을 소재로 다루지 않았다.

- [24 ~ 25]

처음에 적공이 정위가 되니 빈객이 문 앞에 가득 찾아왔는데, 파면되어서는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문밖에 새그물을 칠 정도였다. 적공이 다시 정위가 되니 빈객들이 찾아가고자 했는데 적공이 이에 그 문에 크게 적어 말했다. “한번 죽고 한번 살아 봐야 사귀는 정을 알 수 있고, 한번 가난하고 한번 부유해져 봐야 사귀는 태도를 알 수 있으며, 한번 귀해지고 한번 천해져 봐야 사귀는 정이 드러난다.”

24.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이해한다.

‘새그물을 친다.’라는 것은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다.’라는 뜻으로, ‘문전작라(門前雀羅)’라는 한자성어와 의미가 통한다.

25. **[출제의도]**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활용한다.

‘정승의 말 죽은 데는 가도 정승 죽은 데는 안 간다.’라는 속담은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서는 아첨하다가도 그 사람이 죽은 후에는 돌아보지도 않음’을 이르는 뜻으로, ‘염량세태(炎涼世態)’라는 한자성어와 의미가 통한다.

- [26 ~ 27]

옛날의 충신과 ㉠열사는 이기고 지는 것으로써 뜻을 바꾸지 않았고 강하고 약한 것으로써 기세를 꺾지 않았다. ...(중략)... 충의가 격렬해지면 약한 자도 강한 자를 부릴 수 있고 적은 수도도 많은 수를 대적할 수 있는 법이니, 단지 한번 마음을 옮기는 사이에 달려 있을 뿐이다.

26. **[출제의도]** 글을 이루는 단어를 빠르게 읽는다.

열사(烈士)는 ‘나라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절의를 굳게 지키며 목숨을 바쳐 싸운 사람’이라는 뜻이다.

27.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이해한다.

작자는 마음먹기에 따라서 결과는 바뀔 수 있으니 어려운 상황에도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

- [28 ~ 30]

임금이 말했다. “태종실록이 거의 완성되었으니 내가 그것을 보고자 한다.” 우의정 맹사성이 말했다. “실록에 실은 바는 모두 당시의 일로 후세에 보여 주니 모두 실제의 일입니다. 전하께서 그것을 보더라도 또한 태종을 위하여 고칠 수 없거니와 지금 한 번 그것을 보면 후대의 임금들이 그것을 본받을 것이고 ㉠사관은 의심하고 두려워하여 반드시 그 직분을 잃게 되리니 ㉡어떻게 장래에 믿음을 전하시겠습니까?” 임금이 그의 말을 따랐다.

28. [출제의도] 단어의 짜임을 이해한다.

① 입수 - 술보 관계 ② 작명 - 술목 관계 ③ 청산 - 수식 관계 ④ 일출 - 주술 관계 ⑤ 부모 - 병렬 관계
29.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이해한다.

① 어찌(하) ② 전하다(전) ③ 믿다(신) ④ 장차(장) ⑤ 오다(래)
30.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이해한다.

임금인 세종은 아버지인 태종에 대한 역사 기록이 좋지 않을까 염려하여 실록을 살펴보려고 하였다. 하지만 신하인 맹사성은 임금이 실록을 열람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근거를 들어가며 논리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결국 세종은 맹사성의 의견을 받아들였는데, 이를 통해 임금의 명령에 굴하지 않는 맹사성의 강직한 성품을 볼 수 있다.